



오월 어느 봄날 목장의 하루



윤여임
조리목장 운영

오즘은 눈길이 가 닿는 곳은 어디든지 마음이 활짝 피어나게 한다.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켜는 진돗개 산이와 레오의 얼굴과 마주치면 힘박웃음이 절로 나온다. 일찍 날이 밝는 요즘은 캄캄한 겨울보다 얼마나 새벽 잠 깨기가 수월한지 모른다. 젖을 짜러 나온 것을 알고 녀석들도 느릿느릿 일어나며 참았던 오줌똥을 누느라 여기저기서 수선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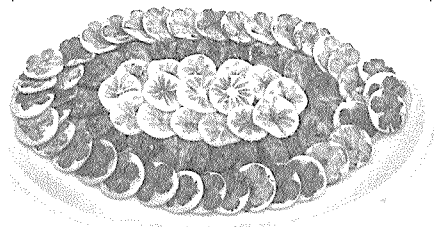
“애들아, 잘 잤니?”

소들에게 인사하면 젖을 짜기 위해 착유장 앞으로 모여든다. 아침착유를 마치고 나오면 금빛 가득한 햇살에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밤새 단잠을 잔 마당의 꽃들은 움츠렸던 꽃봉오리를 활짝 열기 시작한다. 세 시간쯤 걸리는 아침 일을 부지런히 끝내고 아침을 먹고 나서 차를 한잔 마신다. 세상만물을 비추어 성큼성큼 자라게 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오월 햇살아래 재잘대는 작은 새의 노래에 이끌려 찻잔을 든 채 밖으로 나간다. 마음속에는 아침의 분주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고요한 아침의 정경이 주는 평화는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만나

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다른 희망으로 만들어 낸다. 평화는 모내기를 위해 씨레질한 논외의 수면위에 퍼지는 잔잔한 물결에도 있고, 세상살이 웅심이 하나도 안 박힌 싱그러운 어린잎들이 푸르름을 키워 가는 숲에도 있다. 각색의 꽃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한결같은 푸르름이 대견하기만 하다.

환한 미소를 짓는 어린아이의 고른 이처럼 정연하게 싹을 틔워 손가락만큼 자란 옥수수 밭의 황토흙은 새싹의 녹색빛을 받아 그 여유로운 공간이 더 곱다.

가르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자란 머위대, 주먹 썸 한줌 싸서 먹어도 좋을 어린 상추와 땅내 말느라 안간힘을 쓰는 방울토마토, 이웃집 새댁이 슬며시 두고 간 가지모종을 담은 작은 포트의 양중맛음도 계절의 정취를 더한다.



기승을 부리는 잡초사이로 곳곳하게 꽃대를 피워 올리는 마가렛의 기쁨하게 잘 생긴 흰 꽃잎은 노란 꽃술 때문에 더 선명하고, 아직 지지 않은 제비꽃의 보랏빛 마지막 열정도 훌륭하다. 마치 종이 달린 듯 조롱조롱 피어난 금낭화를 보면, 교복 입고 가방을 맨 채 한참을 들여다보던 꽃다운 큰딸이 생각나서 그리움에 가슴이 뭉클하다.

목장은 더도 덜도 말고 오월 초,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흙지도 덤지도 않아 물일을 해야 하는 새벽젓 짜기도 한결 수월하고 나른한 햇살에 소들의 게으름은 평화롭기만 하다. 봄꽃잔치로 들떠있던 나무들도 이제 지는 꽃의 안타까운 자리를 순진한 잎

들이 채우기 시작한다.

화사한 부활로 존재를 아낌없이 드러내는 나무들 사이에서 숨죽이며 인내하던 감나무도 반짝이며 새순을 틔워, 잔가지를 사뭇 꺾어 보며 조바심을 치던 성급함을 반성하게 한다.

찾잔을 두고 나와 호미를 들고 밭으로 갔다.

단비 내린 뒤라 흙 내음이 물씬한 밭에 앉아 슬근슬근 잘 뽑히는 잡초를 매면 마음 속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다. 잔들맹이가 호미에 닿는 경쾌한 금속음이 한없이 빠져드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바꾸

게 한다. 뽑아도 뽑아도 한이 없는 잡초는 어디서 씨앗을 품었다가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문득 이게 다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실없는 생각을 하며 혼자 웃는다.

상추 뜯어다 잔지무침에 대강 점심한 술 뜨고 장이 선 읍내에 나갔다. 이것저것 계절을 잇은 채소와 과일들이 난전에 그득하고 얼은 생선을 놓고 금방 바다에서 왔다고 너스레 떠는 생선장수의 입담에 끌려 자반을 한 손 샀다. 여기저기 웃이며 잡화를 파는 곳은 유행의 첨단이다. 입으면 날아갈 듯한 하늘하늘한 블라우스에 번쩍이는 장식 이 달린 바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자잘한 꽃이 핀 화분들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터에는 낮은 이들이 꽤있다. 20여 년 전 이곳에 이사 왔을 때부터 봐왔던 이들은 이제 나이를 먹어 중년을 넘기고 있고 더러는 가게를 차려 어엿하게 사장으로 변신한 이들도 있다. 그들의 얼굴에 늘어나는 주름

살을 보며 내 나이를 꼽아 보고 흠칫 놀라기도 한다.

이런 저런 구경거리를 뒤로하고 방앗간에 가서 물에 불려 가지고 나간 찹쌀을 뺏아서 들어왔다. 찬 우유로 반죽을 해서 치대놓고 바구니를 들고 나가 보라색 제비꽃을 따고 썩도 속잎으로 골라서 땀다. 아이들을 셋이나 두고도 많은 날을 우리 내외만 사는 적적한 집에 늘 일거리만 산같이 쌓여서 정신이 없을 이맘때쯤이면, 일거리 다 제쳐두고 마루에 앉아 화전을 빚는다. 무심하게 마음을 모아 화전을 만드는 일은 많은 일거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일이다.

화전은 뭐니뭐니해도 제비꽃으로 수를 놓고 속으로 잎을 받치는 것이 제일 예쁘다. 진달래꽃잎은 그 잎이 너무 크고 기름에 지지면 색이 변하지만 제비꽃은 선명한 보라색 그대로 자기 빛을 지니는 고운 꽃이기 때문이다. 하나씩 정성들여 빚어가며 집을 떠나 있는 자식들을 생각도 하고 또 그리운 이들을 떠올린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슴이슴 그리움에 전을 빚는 손길이 멈칫거리고, 너무 늙으시고 가난한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속에서 뜨거움이 인다. 냇가에서 그물로 고기 잡고 언 논바닥에서 썰매를 타며 손등으로 코를 훑던 어린 시절은 행복했었지. 밤이면 무명이불속에 차레로 발을 넣고 부대끼며 오순도순 살았던 오십 줄에 선 형제들은 그때의 꿈을 얼마나 이루고 사는 걸까. 그때는 비록 가난했어도 지금보다 세상은 훨씬 고왔을 터였다. 이제는 다시 못 올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동무들 생각도 하다 보면, 기름위에 올린 화전은 자글자글 기름이 배어들며 노릇하게 익는데 생시보다 보랏빛이 더 곱다.

목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한 접시 들고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그제 송아지 낳고 아파서 속상한 어미 소 이야기도 하고 주말에 집에 온다는 아들 녀석이 헌혈을 너무 자주해 걱정이라는 이야기도 나눈다. 돌아오는 작은댁 서방님네 얘기 백일에는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의논하다 눈길이나 마주치면 싱거운 미소를 짓는다. 어느새 해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작업복을 갈아입는다. 젖어머미 기척에 음매음매 우는 송아지들 우유부터 먹이고, 그 다음 처녀 소들 밥 먹이고, 그리고 젖을 짜기 시작한다. 착유실 창틈으로 어리비치는 넘어가는 햇살이 어찌나 고운지 은근히 젖 짜는 손길이 바빠진다. 부지런히 착유를 마치고 나오면 일곱 시를 막 지나는 목장은 환상에 젖어있다. 해가 넘어간 꽃밭에는 햇살 아래서는 볼 수 없는 본연의 색이 드러난다. 흰 꽃잔디는 흰색이 더 선명하고, 절정을 지나는 매발톱 보랏빛 꽃에 스미는 어두움은 처연한 아름다움이다. 앞 뒷산 연록의 향연은 서서히 어둠에게 자리를 내주는 태양과 함께 진한 이취움을 뒤로하며 어둠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소나무 위에 걸린 눈썹달을 바라보며 무사히 하루를 보낸 안도감과 평화로움에 감사하며 목장을 내려온다.

“모두 잘 자!”

찾아온 어둠은 고단한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휴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내 남직없이 마음 놓을 수 없는 어려운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겨나갈 희망을 만들며,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단잠에 빠져들 것이다. ㉟